

반도체·주주환원·수급 '3박자'... SK스퀘어, 황제주 입성

주가 120만원 넘기며 시총 3위 등극
SK하이닉스 지분 약 20% 보유
펀드 규제로 대체 투자 수요 유입
증권가 목표주가 100만원 이상 올라



SK스퀘어 본사 T타워

/SK스퀘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효성은 '인공지능(AI)' 바람을 탔다. 올해 주식 시장에서 1주당 100만원을 돌파한 종목, 일명 황제주에 오른 배경이다. 그렇다면 SK스퀘어는 왜 올랐을까?

SK스퀘어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8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황제주'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만 195.92% 올랐다. 거침없는 상승세에 SK스퀘어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우선주 제외)까지 경종 뛰어올랐다.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100만원대로 올려잡았다.

연초 만해도 4곳에 불과했던 황제주는 K증시 불장 바람을 타고 9개로 불어났다. 효성중공업(459만7000원), 두산(179만원), 태광산업(116만2000원), 고려아연(174만7000원), SK하이닉스(160만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48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3만3000원), HD현대일렉트릭(138만9000원), 삼양식품(129만4000원) 등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황제주가 늘어난 건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중동전쟁이라는 우울한 환경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SK스퀘어의 상승세에는 이유가 있

다.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상승이 꼽힌다. 지분율은 약 20%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저전력 D램(LPDDR) 등 전 영역에 걸쳐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1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성장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7조6103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 노력도 투자자를 불러 모은다. SK스퀘어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5조9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SK스퀘어는 지난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했고 올해는 올해는 2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 2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SK하이닉스와 주가 상관관계가 98%에 달해 SK하이닉스를 직접 담기 어려운 일부 펀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단일종목 10% 룰'에 따라 주식형 펀드는 단일 종목을 10% 이내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증권가는 눈 높이를 올려잡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은 배당금 확대로 이어져 SK스퀘어의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렇게 유입된 풍부한 자원은 다시 동사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반도체 산업 관련 M&A(인수합병) 투자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를 지속해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안 연구원은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 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수급적 장점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스퀘어의 시총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다섯 번째 100조원 기업이 됐다"면서 "임직원 84명 기준 인당 시총 1조2000억원으로 국내 최고"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7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반도체 투자 열기는 ETF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날 기준 SOL A1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은 1조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ETF가 SK스퀘어를 주요 편입 종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한 SK스퀘어를 함께 편입하며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 수혜 기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I·로봇에 직접 투자... '국민성장펀드' 판매

6000억 규모... 22일부터 선착순
정부가 손실 일부 부담해 안정성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판매한다.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해 첨단산업 투자 생태계를 키우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판매된다. 판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투자·삼성증권 등 15개 증권사를 통해 진행된다.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되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

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 재정이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형태를 적용해 투자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각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실제 투자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총 10개사가 선정됐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코스닥벤처펀드 형태로 참여해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방산, 로봇, 콘텐츠 등 12개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금융사와 일반 투자자 자금을 더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3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특히 자금의 상당 부분을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하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띈다. 단순히 기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 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코스피 투자 비중은 제한적으로 가져가되,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투자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삼성전자 평택 공장 프로젝트 등에 자금이 투입됐다. 최근에는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확장 자금 지원과 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베리온 투자까지 진행하며 첨단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이 지난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선보인 세 번째 기업동행정원인 '깨비정원 in 서울숲'의 모습. /KB증권

KB증권, 서울숲에 '깨비정원' 조성

시민들에게 치유의 경험 제공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KB증권이 도심 한복판에 '정원'을 만들었다. 서울숲에 세 번째 '깨비정원'을 조성하며 도시 녹지 공간을 매개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통해 세 번째 기업동행정원인 '깨비정원 in 서울숲'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친환경 프로젝트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이번 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며, 도심 속 자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시 활황에 증권사 실적 '고공행진'

NH투자 1분기 매출 8조8976억
키움증권 영업이익 90.9% 증가

코스피가 7000시대를 연 가운데 증권사의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대 증권사 중 이날까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 2 곳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23일 올해 1분기 8조89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8%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6367억원, 당기순이익은 475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분기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 연간 1조원을 넘은 지난해(1조315억원)의 46%로,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순이익의 약 절반을 벌어들였다.

키움증권은 같은 달 30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212억원, 당기순이익이 477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9%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전

망치(5583억원)를 11.3% 상회했다. 순이익은 102.6% 늘었다.

매출은 9조3960억원으로 156.7% 증가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한국투자증권) 등도 장밋빛 실적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357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2% 급증한 수치다. 한국금융지주는 60% 가까이 증가한 8220억원, 삼성증권은 50% 이상 늘어난 5116억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신하은 기자

신한운용 'AI반도체ETF', 순자산 1조 돌파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5414억

는 상장 한 달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5000억원 돌파 4일 만에 순자산 1조원을 달성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AI반도체TOP2플러스ETF'의 순자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상장 이후 약 50일 만에 단기간에 국내 반도체 대표주 투자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특히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의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5414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반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